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176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김정호 · 강민정 · 강성희
 강은미 · 고영인 · 기동민
 김경만 · 김상희 · 김성주
 김성환 · 김영배 · 김영주
 김용민 · 김운덕 · 김원이
 김종민 · 김희재 · 노웅래
 박상혁 · 박영순 · 박재호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배진교 · 백혜련 · 서삼석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신영대 · 신정훈 · 신현영
 심상정 · 안호영 · 양기대
 양이원영 · 어기구 · 우원식
 위성곤 · 윤영찬 · 윤재갑
 윤후덕 · 이동주 · 이소영
 이수진 · 이수진^(비) · 이용빈
 이용선 · 이원택 · 이은주
 이탄희 · 이학영 · 이형석
 임종성 · 장혜영 · 전해숙
 정성호 · 정일영 · 정춘숙
 정태호 · 정필모 · 조오섭
 주철현 · 한정애 · 허숙정
 허 영 · 허종식 · 홍정민

황운하 · 황 희 의원
(7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통해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와 기여 필요성을 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기금의 취지를 존중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손실과 피해’ 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와 대한민국의 기여 필요성을 표명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식적인 출연 의사를 표명하고 응당한 규모의 기부금으로 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부금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 정당 간 시급히 소통하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노력

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안이유

지난 11월 30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공식 발표되었음.

‘손실과 피해’ 기금은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기후재난 피해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자금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조성된 기금은 세계은행을 통해 시범운영될 예정임.

이번 발표에 따라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기부금 계획을 발표하였고, 독일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은 1억 달러(USD), 영국은 5,000만 달러, 미국은 1,750만 달러, 일본은 1,000만 달러 등 지원 계획을 밝힘.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해당 기금의 공식 채택을 환영하는 한편 정부의 출연 의사 및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2022’ 보고서와 국제과학자그룹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의 발표 등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에서 전세계 10위권 이내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사적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전세계 2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 나타나는데, 지난해 경제개발협

력기구(OECD)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시민의 비율 면에서 대한민국은 1위를 기록한 바 있어 ‘손실과 피해’ 기금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와 한국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우리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